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1년 6월 24일(목) 배포

2021년 6월 25일(금)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 매체는 6월 24일(목) 낮 12시



기업집단국 내부거래감시과

담당과장: 권순국(044-200-4877)

담당: 김홍직 사무관(044-200-4883)
김도형 조사관(044-200-4881)

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몰아준 삼성그룹, 부당지원행위로 제재

- 부당지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최지성 前미래전략실장 고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미래전략실 개입 下에 사실상 이재용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 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 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前미래전략실장 최지성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 미래전략실: 과거 회장 비서실로, 인사 권한을 토대로 계열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총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미전실)
- * 지원주체: 삼성전자·디스플레이·전기·SDI(이하, 삼성전자 등 4개사)
- * 지원객체: 삼성웰스토리(이하, 웰스토리, 삼성에버랜드에서 13.12월 물적분할, 현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

■ 삼성전자 등 4개사는 13년 4월부터 심의일(21.6.2.)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전기 10%),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고이익을 항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웰스토리는 식재료비 마진율 25%로 검증하기로 하였는데, 식재료비 검증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식재료비 마진을 보장한 효과

- 12년 말 웰스토리(당시 에버랜드)가 제공하는 급식 품질에 대한 삼성전자 직원들의 불만이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웰스토리는 식재료비를 추가 투입하였고, 이로 인해 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은 기존 22%에서 15% 수준으로 급감하게 되었다.

* 직접이익률 : 매출액에서 직접비(식재료비, 인건비, 소모품비)를 뺀 직접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수주 여부 결정 등 급식업계의 영업 기준임

○ 웰스토리의 수익 악화가 우려되자, 미전실은 12. 10월 웰스토리가 최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고, 미전실장 최지성은 웰스토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계약구조 변경안(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 지급, 물가·임금인상을 자동 반영)을 13. 2월 보고 받고 이를 최종 확정하였다.

- 당시 웰스토리가 이부진 사장(당시 에버랜드 전략사장, 이재용 동생)에게 보고한 문건 등에 따르면, 당시 미전실이 개입하여 마련한 계약 구조 변경안은 웰스토리의 기존 이익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함이었다.

○ 이후, “전략실 결정사항이므로 절대 가감하여서는 안 됨” 이라는 미전실 방침에 따라 웰스토리는 삼성전자(13.4월)를 시작으로 삼성디스플레이(13.4월), 삼성SDI(13.6월), 삼성전기(13.7월)와 상기 계약 구조로 급식 수익계약을 체결하였고, 심의일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 한편,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식자재 비용의 25%를 검증 마진으로 인정하였으나, 미전실은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 가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시장 가격 조사마저 중단시킴으로써 웰스토리가 그 이상의 마진을 취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수단마저 봉쇄하였다.

* 그 결과, 웰스토리는 식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식재료 구입에 쓰기로 약정한 금액의 일부까지 마진으로 수취하였고,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웰스토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게 되었음

■ 미전실은 웰스토리의 급식물량 보전을 위해 14년, 18년 삼성전자가 추진하던 구내식당 경쟁입찰을 중단시켰고, 이러한 미전실의 영향으로 17년 각 지원주체의 경쟁입찰 시도 역시 사실상 무산되었다.

- 14년 1월에는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 사장) 결정으로 삼성전자 4개 식당이 경쟁입찰 준비에 들어갔음에도 미전실 전략1팀 최○○ 전무가 전화 한통으로 입찰을 무산시켰고, 18년 5월에는 삼성전자 1개 식당에 대한 입찰마저 당시 미전실 역할을 했던 사업지원TF장 정○○ 사장이 중단시켰다.
- 미전실 조직이 없던 17년 10월에는 삼성전자 인사지원팀장 박○○ 부사장이 “너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면서 삼성전자 2개 식당에 대한 경쟁입찰을 보류시켰다.

■ 약 9년간의 지원행위를 통해 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미전실이 의도한 이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25.27%의 평균 직접 이익률을 시현하였고, 같은 기간 상위 11개 경쟁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이익률(3.1%) 대비 현저히 높은 영업이익이익률(15.5%)도 달성하였다.

*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씨제이프레쉬웨이 등 웰스토리를 제외한 단체급식 시장 매출액 기준 상위 11개 기업을 의미함(첨부1 단체급식시장 현황, 38p 참조)

- 나아가, 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한 안정적 이익을 토대로 외부 사업장의 경우 영업이익이익률 -3%를 기준으로 한 수주전략으로 시장지배력 확대에 나섰고, 이는 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급식품질 제고보다는 외부사업장 수주확대에 사용한 것으로써, 이로 인해 독립 급식업체는 입찰기회 자체를 상실하거나 불리한 조건에서 수주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등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었다.

■ 한편, 웰스토리는 이 사건 단체급식 내부거래를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을 바탕으로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Cash Cow)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자세한 내용 본문 참조).

- 舊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물산이 최초로 공시한 분기 보고서(15.9월)를 살펴보면, 삼성물산 전체 영업이익이익의 74.76%가 웰스토리로부터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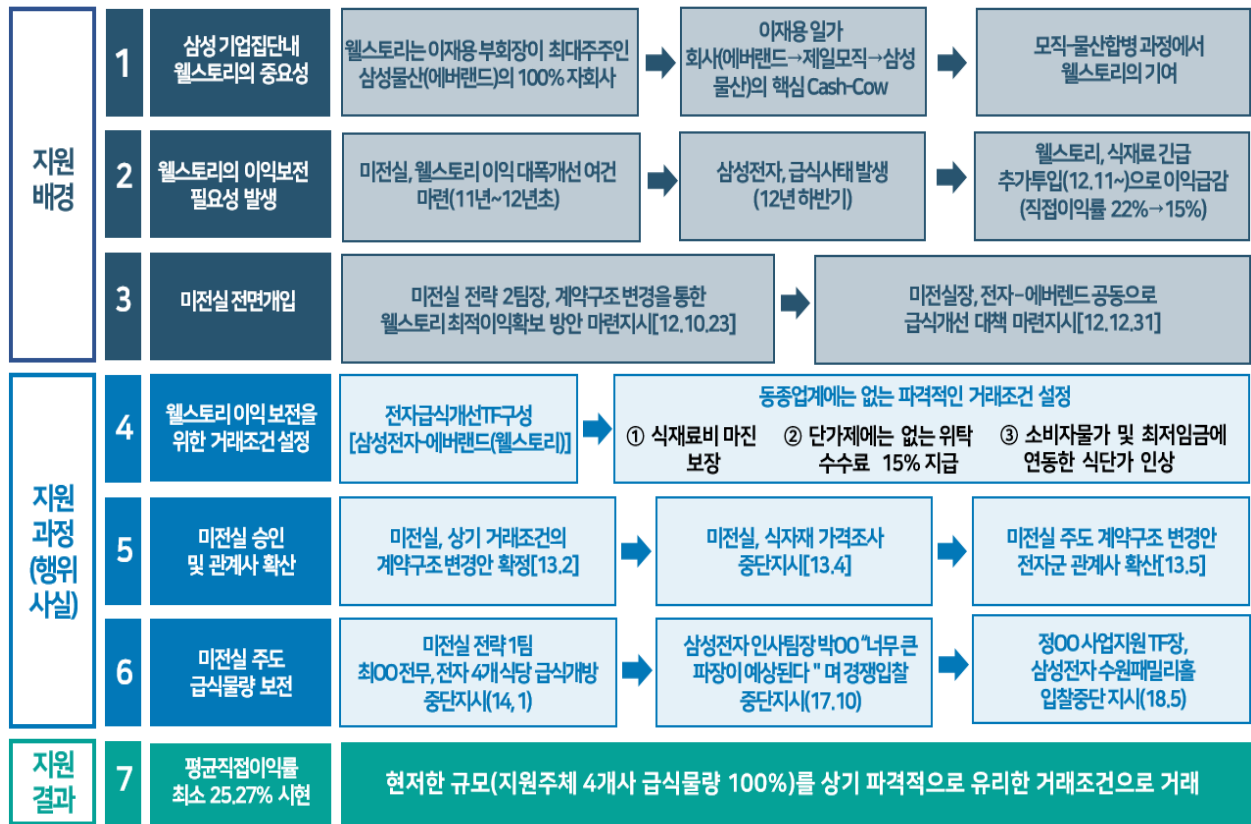
○ 또한, 舊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 삼성회계법인이 평가한 제일모직 측 웰스토리 부문의 가치(약 2조 8천억 원)가 피합병회사 舊삼성물산의 가치(약 3조 원)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다는 점이 확인된다.

○ 15년부터 19년까지 기간 중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은 웰스토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의 상당부분을 배당금(총 2,758억 원)으로 수취하였다.

* 배당액 및 배당성향: 728억 원(99.02%, 15년) → 500억 원(67.91%, 16년), 930억 원(114.56%, 17년) → 500억 원(71.42%, 18. 7월 공정위 현장조사) → 100억 원(16.92%, 19년)

■ 금번 삼성전자 등 5개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부당지원행위 사건 집행 이래 최대 규모이며,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 1,012억 원은 국내 단일기업 규모로는 최대이다.

【이 사건 법 위반 행위 내용 개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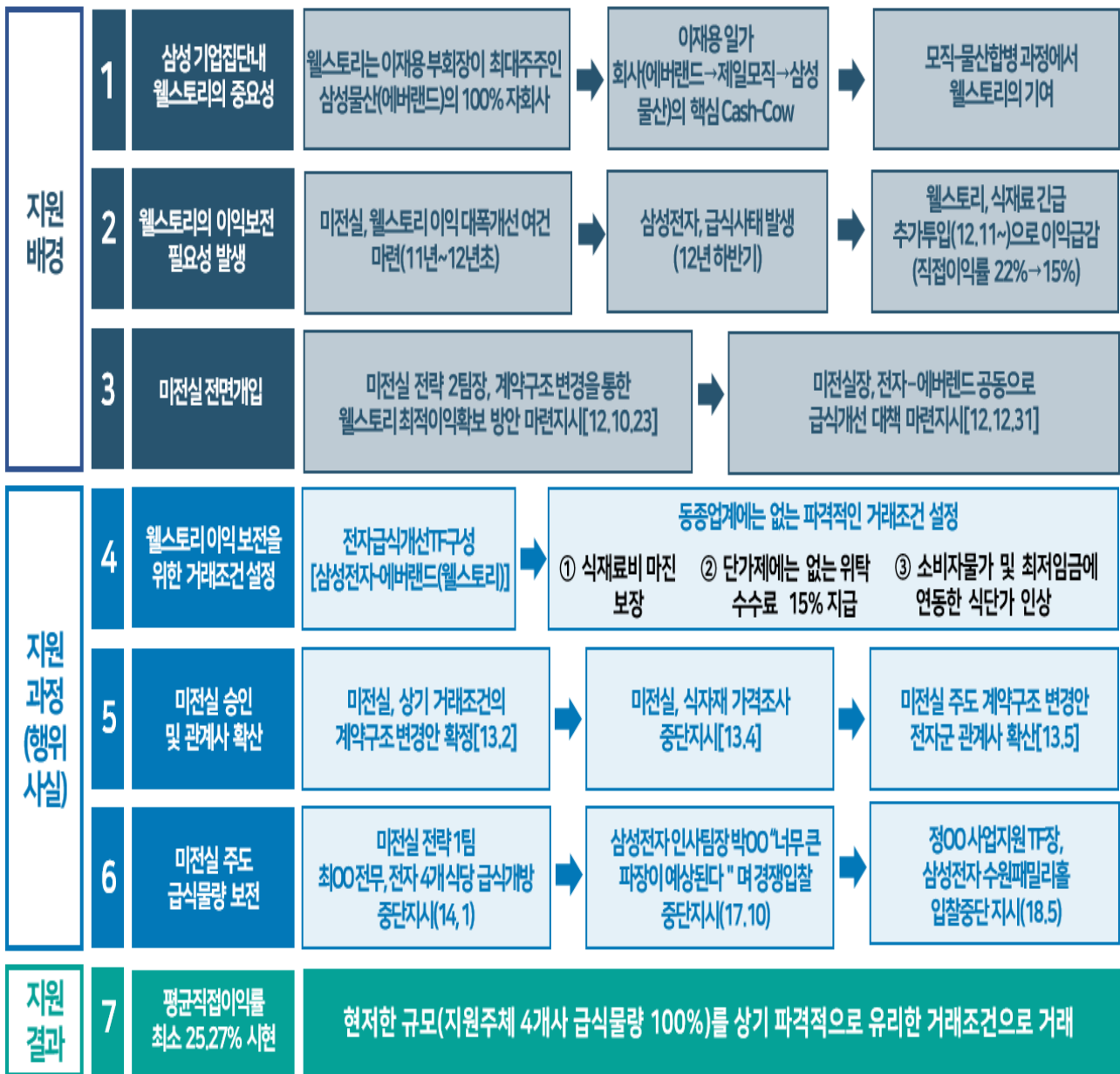
I

법 위반 행위 내용

I-① 개요

□ 이 사건 지원배경, 지원과정(행위사실), 지원결과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 위반 행위 내용 개요도]



I-②

지원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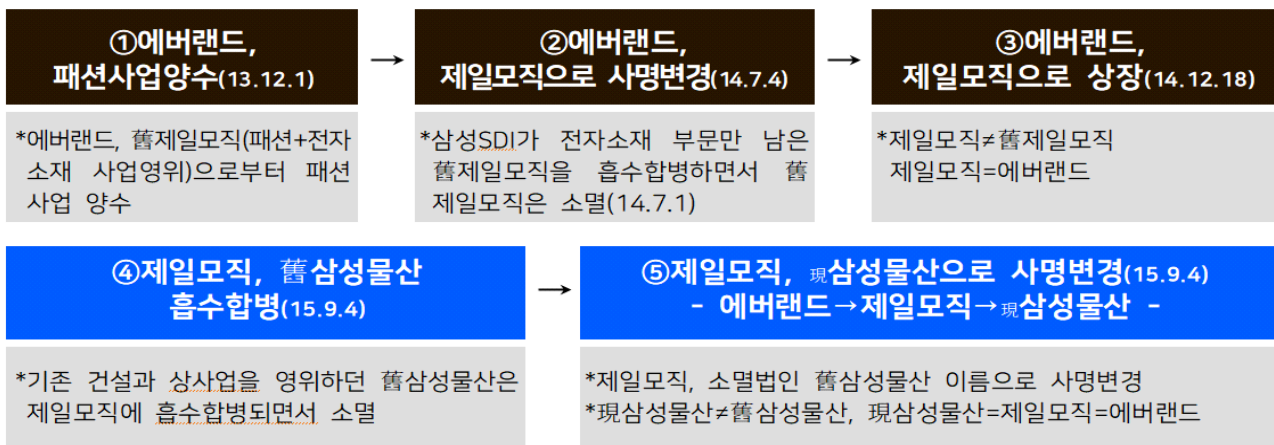
1. 삼성 기업집단 내 웰스토리의 중요성

① 웰스토리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의 100% 자회사

① 現삼성물산의 모태는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 에버랜드는 13. 12. 1. 舊제일모직¹⁾으로부터 패션사업 부문을 양수하였고, 삼성에스디아가 전자소재 부문만 남은 舊제일모직을 14. 7. 1. 흡수합병하면서 舊제일모직이 소멸하게 되자, 14. 7. 4. 자신의 법인명을 소멸법인명과 동일한 제일모직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해 12. 18. 제일모직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다.
- 이후, 제일모직(에버랜드)은 15. 9. 4. 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던 상장법인 舊삼성물산을 흡수합병(이하, 모직-물산 합병)하면서, 법인명을 다시 삼성물산(에버랜드)으로 변경하였다.
- 결론적으로 에버랜드는 자신의 법인명을 제일모직(14.7.4.), 삼성물산(15.9.4.)으로 변경하였고, 제일모직, 삼성물산은 기존 패션 및 전자소재 사업을 영위하던 舊제일모직, 기존 건설 및 상사 사업을 영위하던 舊삼성물산과 구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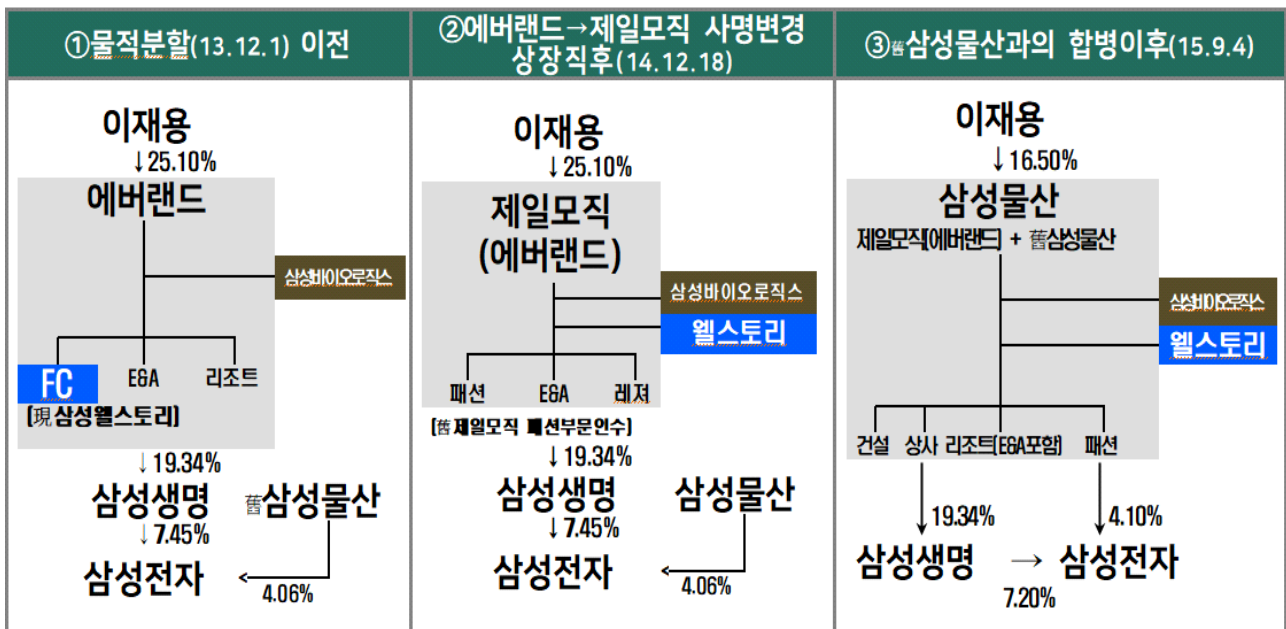
[에버랜드, 제일모직, 舊제일모직, 舊삼성물산, 現삼성물산 관계]



1) 舊제일모직은 패션 및 전자소재 사업을 영위하던 상장법인이었다.

② 웰스토리의 지위변천 과정

- 에버랜드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위치해 있으며, 웰스토리는 당초 급식 및 식자재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FC(Food Culture) 사업부 소속이었다.
- 에버랜드는 13. 12. 1. 전문급식 및 식자재 유통사업을 담당하는 FC(Food Culture) 사업부를 물적분할²⁾하여 웰스토리를 설립하였다.
- 결론적으로 웰스토리는 13. 12. 1. 에버랜드로부터 물적분할 되기 이전에는 에버랜드 FC사업부 소속이었고, 13. 12. 1.부터는 에버랜드, 에버랜드가 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변경한 14. 7. 4.부터는 제일모직, 15. 9. 4. 모직-물산 합병 이후 현재까지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이다.



② 이재용 일가 회사(에버랜드→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핵심 Cash-Cow

- ① 에버랜드가 영위하는 사업 중 수익이 안정적으로 지속 발생하는 부문은 웰스토리가 사실상 유일하였다.

2) 이로 인해 에버랜드의 자회사가 됨에 따라 웰스토리는 사익편취행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사건 지원행위 이후 합병직후 까지, 에버랜드 사업부별 영업이익의 현황단위: 백만 원

부문	13년	14년	15년
패션	4,566	56,044	-8,943
건설(E&A)	129,420	75,124	52,784
레저	20,520	13,677	-18,599
웰스토리	86,464	117,883	109,564
바이오	-	-	-19,851

② 웰스토리의 수익은 오로지 내부거래에서만 발생하였다.

- 웰스토리는 계열회사와의 급식 내부거래를 바탕으로 내·외부 경영환경 변화와 상관없이 매년 약 1조 1천 억 원의 매출과, 1,000억 원 수준의 안정적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수익성이 발군인 숨겨진 알짜 기업이다.

웰스토리			11개 상위 단체급식사업자 합계		
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13년	10,127억	760억	13년	23,008억	932억
14년	10,987억	1,055억	14년	24,089억	938억
15년	11,115억	993억	15년	25,463억	949억
16년	11,209억	979억	16년	26,285억	834억
17년	11,336억	1,056억	17년	27,701억	867억
18년	11,547억	972억	18년	29,782억	588억
19년	12,197억	885억	19년	30,602억	496억
평균	11,217억	957억	평균	26,704억	801억

- 그러나, 웰스토리는 계열회사들의 내부거래를 통한 지원행위 없이는 독자적 생존조차 불투명한 회사이다.
- 이 사건 지원기간 동안 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영업이익은 누적 4,859억 원(연평균 694억 원)인데 반해 비계열사로부터 시현한 영업이익은 누적 103억 원 적자(연평균 15억 원 적자)로 1위 사업자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이다.

웰스토리의 비계열사 영업이익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평균
비계열사로부터 시현한 영업이익	△80	34	15	54	5	△91	△40	△103	△15
이 사건 지원행위 관련 영업이익	645	731	676	613	738	790	665	4,859	694

③ 결론적으로 에버랜드가 영위하는 사업 중 안정적 수익이 발생하는 부문은 웰스토리가 사실상 유일했고, 웰스토리의 수익은 오직 내부거래에서만 창출되었으므로 미전실로서는 웰스토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계열회사의 급식물량을 몰아줄 유인이 존재하였다.

③ 에버랜드의 핵심 Cash-Cow로서, 웰스토리는 에버랜드 입장에서 모직-물산 합병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기여

① 모직-물산 합병 이후 삼성물산(에버랜드)이 최초 공시한 분기보고서(15.9월)를 보면, 삼성물산(에버랜드) 전체 영업이익의 74.76%가 에버랜드 측 웰스토리로부터 발생했음이 확인된다.

합병(15.9.4) 직후 삼성물산 사업부문별 영업이익 등 기여도(15.3분기)

구분	사업부	손익	금액(백만 원)	비중(%)
舊 삼성물산	건설	매출액	1,227,615	20.05
		영업손익	20,199	17.85
	상사	매출액	1,000,653	16.34
		영업손익	24,834	21.94
제일모직 (에버랜드)	패션	매출액	1,204,474	19.67
		영업손익	△24,437	△21.59
	건설(E&A*)	매출액	1,110,974	30.85
		영업손익	34,919	11.50
	레저(리조트)	매출액	327,779	5.35
		영업손익	△9,545	△8.43
	급식(웰스토리)	매출액	1,245,773	20.34
		영업손익	84,614	74.76


* E&A(Engineering & Asset) 부문은 건축, 토목, 조경, 부동산서비스업을 영위

② 제일모직과 舊삼성물산은 합병을 앞두고 안진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에 의뢰해 웰스토리 등의 영업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삼정회계법인 평가보고서를 살펴보면,

- 웰스토리 부문의 가치(약2조 8천억 원)가 피합병회사 舊삼성물산의 가치(약 3조 원)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으며, 특히, 웰스토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기업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웰스토리 부문은 실제 발생하고 있는 수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판단 해도(최소값 기준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바이오 부문은 최소값과 최대값의 편차가 크고, 실제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받기 쉬우며, 실제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현재 분식회계 재판 진행 중)

심상정 의원 보도자료(19.5.23.) - 삼성KPMG의 제일모직(에버랜드) 영업가치 분석 자료



Executive Summary
주당가치 평가 결과

Strictly Private and Confidential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이용하여 산정된 합병당사회사의 주당가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회사(제일모직) 주당가치 평가 결과				피합병회사(삼성물산) 주당가치 평가 결과			
(단위: 백만원)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단위: 백만원)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건설부문 영업가치	919,646	1,001,474	1,102,744	건설부문 영업가치	2,140,659	2,335,678	2,576,113
레저부문 영업가치	454,587	501,331	561,445	상사부문 영업가치	644,024	714,187	809,809
웰스토리부문 영업가치	2,346,082	2,786,045	3,426,482				
패션부문 영업가치	1,245,547	1,507,916	1,868,546				
바이오부문 영업가치	6,381,439	8,564,356	10,939,214				
영업가치 합계	11,347,301	14,361,121	17,898,431	영업가치 합계	2,784,684	3,049,865	3,385,923
(+) 비영업용자산		4,444,722		(+) 비영업용자산	11,506,587	11,717,897	11,929,206
(-) 이자부부채 등		1,762,156		(-) 이자부부채 등	5,047,511	5,047,511	5,047,511
(+) 자기주식 가치	2,302,755	2,797,420	3,378,007	(+) 자기주식 가치	509,519	538,616	572,042
보통주 가치(자기주식 포함)	16,332,622	19,841,107	23,959,004	보통주 가치(자기주식 포함)	8,853,279	9,358,867	9,939,660
총발행주식수		135,000,000		총발행주식수		156,217,764	
주당가치(원)	120,982	146,971	177,474	주당가치(원)	56,673	59,909	63,627

③ 합병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약4,090억), 합병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대응(약6,751억), 합병 이후 舊삼성물산 주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배당확대 정책의 실시(17년~19년, 평균 약1,116억) 등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었고,

- 이 사건 내부거래를 통해 웰스토리가 취득한 이익은 배당금의 형태로 삼성물산에 귀속되어 대규모 자금수요를 충족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 웰스토리로부터 배당금 수취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회계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웰스토리 당기순이익(A)	73,518	73,631	81,177	70,006	59,094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72,813	69,245	93,832	83,627	102,070
배당지급 총계(B)	72,800	50,000	93,000	50,000	10,000
배당성향(B/A)	99.02%	67.91%	114.56%	71.42%	16.92%

* 삼성물산 총수익가 지분율(20.10월말 현재)
- 이재용 17.48%, 이부진 5.60%, 이서현 5.60%, 이건희 2.90% 등 총 31.58%

** 18. 7. 3. 공정위 현장조사

- 한편, 제일모직(에버랜드)은 배당의 장단점을 검토하면서, 제일모직의 Cash Cow로 웰스토리의 역할이 대내외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확인된다.

웰스토리 배당 검토 발췌(14.9.15.][삼성물산]

1) 배당시 장점

(중략)

상장 후 주가유지에 유리

- 웰스토리 배당에 대한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기대감으로 주가유지에 상대적으로 유리

2) 배당시 단점

웰스토리가 자체 성장보다는 모직의 Cash Cow 역할로 대내외적으로 인식될 가능성 유

동종업계의 배당성향(7~12%) 보다 고배당 부담

2. 삼성전자 급식사태 발생으로 웰스토리의 수익 악화가 우려되자 웰스토리의 이익을 종전 수준으로 보전해 줄 필요성 발생

① 미전실, 웰스토리 이익 대폭개선 여건 마련(11년~12년초)

- 미전실은 11. 2월경 삼성전자 등 4개사에 식재료비를 1食당 2,500원에서 3,000원으로 500원 인상할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12. 3월경 삼성전자 등 4개사에 무상급식(1日1食→1日3食) 전면 도입을 지시함에 따라 웰스토리의 식수물량은 대폭 증가*하였다.
- * 12. 3. 1. 시행전 대비 12. 5월말 기준 일평균 食數는 평균 12% 증가
- 단가인상 등으로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웰스토리가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 * 급식은 복리후생의 한 항목으로 사실상 임금으로 인식되므로, 급식단가 인상은 보다 많은 급식비 지출을 위해 임금을 희생한 것과 동일함

② 삼성전자, 급식사태 발생(12년 하반기)

- 그런데 직원들 기대와 달리 양질의 식사가 제공되지 않자, 12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불만이 급증하였다.
- 급식불만 VOC는 급증*하였고, CSI(Customer Satisfaction Index) 조사 결과 음식맛 부문 만족도**는 급락하였다.
- * 12년 1월부터 7월까지 VOC 총 331건 중 불만 VOC가 210건으로 심각한 수준이었음
- ** 삼성전자 사업장 중 가장 식수규모가 큰 기흥/화성 사업장의 경우, 만족도 점수가 11년 대비 4.8점이나 하락하였고, 음식의 맛 부문 만족도 점수는 11년 대비 11.5점이나 하락
- 웰스토리가 “종업원 밥값가지고 내부에서 이익내서 외부사업 한다” 는 임직원들의 불만이 공공연하게 확산되었고,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웰스토리의 독점적인 사내식당 수익계약을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 이러한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목소리는 급기야 미전실 전략2팀장이 운영회의(12.10.23.)에서 공식 언급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전자급식개선T/F』 검토결과(13.2.)(삼성전자)	미전실 에버랜드 운영회의(12.10.23.) 결과(에버랜드)
<p>사원들은 가격경쟁력 저조 및 식자재 품질이 미흡한 사유가 식당업체가 이원화되지 않아서라고 주장하기도 함</p> <p>※ 원가절감 및 이원화가 체질화된 사원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음</p>	<p>3. 主要内容(전략 2팀장 지시사항 중심)</p> <p>1) '13년 중점 추진전략 관련</p> <p>□ <u>話頭에 電子 급식 이슈 관련</u></p> <p>- <u>종업원 밥값 가지고 내부에서 이익내서 외부사업 한다는 이야기 나오는 것 아닌가?</u></p>

③ 웰스토리, 식재료 긴급 추가투입(12.11.~)으로 이익급감(직접이익률 22%→15%)

- 웰스토리는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12. 11.부터 메인메뉴에 대해 추가 식재료(1食당 240원)를 투입하였고,
- 이로써, 전자 급식사태는 진정되었으나, 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은 기존 22%에서 15%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전자 사업장 식당 계약구조 개선(안)(13.1.28.)(에버랜드)

- 기존의 경우 직접이익률 22%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12.11月 後 개선에 따른 재료비 추가투입으로 이익률(15%) 低下**

3. 미전실의 전면개입

① 미전실 전략2팀장, 계약구조 변경을 통한 웰스토리의 최적이익 확보방안 마련 지시(12.10.23.)

- 전자 급식불만 사태로 웰스토리의 수익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미전실 전략2팀장은 이 사건 지원행위에 개입하였다.
- 즉, 미전실 전략2팀장은 운영회의(12.10.23.)에서 “계약기준을 변경해서”, “법적인 이슈를 따져보면서”, 웰스토리가 “최적의 이익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지시하였다.

② 미전실장 최지성, 삼성전자-에버랜드(웰스토리) 공동으로 급식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12.12.31.)

- 에버랜드(웰스토리)가 전략2팀장의 지시로 자체 TF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던 중 미전실장 최지성은 삼성전자와 에버랜드(웰스토리)가 공동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미전실 에버랜드 운영회의(12.10.23.) 결과(에버랜드)	미결 지시사항 웰스토리 141015.gul의 출력물										
<p>□ <u>관계사 계약 기준을 변경해서</u> 에버랜드는 재료비에 구애받지 않고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u>최적의 이익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u></p> <p>※ 例) 인당 수수료 베이스로 계약하고, 식자재는 실비로 에버랜드로부터 관계사가 직접 구입하는 방법 등 (식자재 관련 품질은 해소하고 에버랜드는 Cost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등)</p> <p>- 매출도 관계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정산 방법 등을 변경해서 절대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 등</p> <p>→ 法的인 이슈를 따져 보면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지시사항)</p>	<p>2. 室長님*</p> <p>【웰스토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과 제 명</th> <th>담 당 자</th> <th>수명 일자</th> <th>최초 일정</th> <th>수정 일정</th> </tr> </thead> <tbody> <tr> <td>전자수원 급식 근본개선대책 - 전자에버랜드 공동</td> <td>김OO 副社長</td> <td>'12年 12.31 日</td> <td>'13.2 月</td> <td>'13. 1月 完了</td> </tr> </tbody> </table>	과 제 명	담 당 자	수명 일자	최초 일정	수정 일정	전자수원 급식 근본개선대책 - 전자에버랜드 공동	김OO 副社長	'12年 12.31 日	'13.2 月	'13. 1月 完了
과 제 명	담 당 자	수명 일자	최초 일정	수정 일정							
전자수원 급식 근본개선대책 - 전자에버랜드 공동	김OO 副社長	'12年 12.31 日	'13.2 月	'13. 1月 完了							

* 우측 증거의 "실장님"은 최지성 당시 미전실장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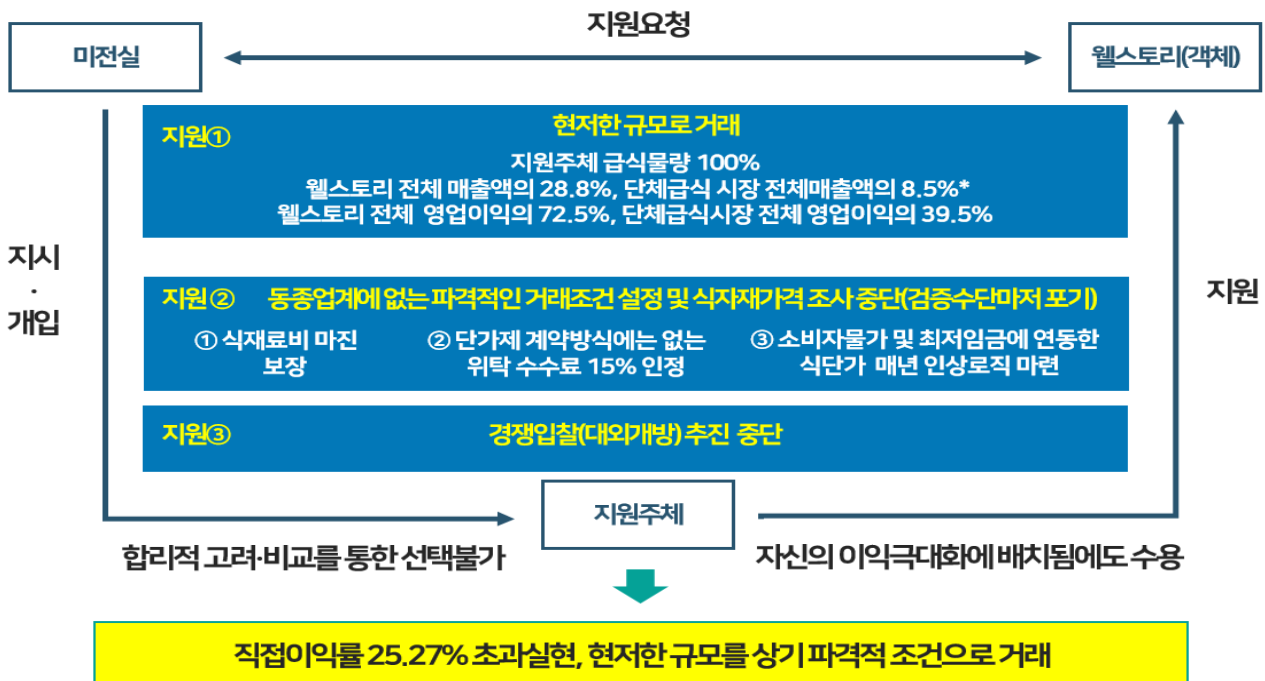
1. 지원과정(행위사실) 개요

□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총수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조직인 미전실의 개입 하에 13년 이후 심의일(21.6.2.) 현재까지 사실상 이재용 일가 회사인 웰스토리에게,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자신들의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아래 [지원개요도] 지원① 부문), 나아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까지 설정하여 줌으로써(아래 [지원개요도] 지원② 부문) 웰스토리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 또한 이 과정에서 미전실은 지원주체들이 경쟁입찰(대외개방)을 하지 못하도록 개입(아래 [지원개요도] 지원③ 부문)하여 식수물량의 이탈을 방지함으로써 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하여 주었다.

* 아래 [지원 개요도] 지원①, 지원②, 지원③이 하나의 행위를 구성

【지원 개요도】



* 동 수치는 법원이 현저한 규모의 거래라고 인정한 현대자동차 계열사들의 글로벌스 지원행위에서의 거래물량 비중(6.8%)보다 1.3배나 높은 수준임

2. 웰스토리의 이익보전을 위한 거래조건 설정

① 전자급식개선TF 구성

- 미전실장 최지성의 지시(12.12.31.)로 삼성전자와 에버랜드(웰스토리)는 13. 1. 4. 전자급식개선TF를 구성하여 웰스토리의 이익보전을 위한 계약구조 변경작업에 착수하였다.

② 동종업계에는 없는 파격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 설정

① 전자급식개선TF가 마련한 계약구조 변경안 핵심내용

- 계약구조 변경안은, 웰스토리와 수의계약으로 계속 거래하는 것을 전제로 ①식재료비 마진 보장, ②단가제 계약방식에는 없는 위탁수수료(인건비의 15%) 지급, ③소비자물가 및 최저임금에 연동한 식단가 매년 인상 등 세 가지 거래조건을 삼성전자가 웰스토리에게 설정하여 줌으로써 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하여 주는 것이 핵심이다.
- 당시 에버랜드(웰스토리)가 이부진 사장(에버랜드 전략사장, 이재용 동생)에게 보고한 문건 등에 따르면, 전자급식개선TF는 웰스토리의 기존 이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계약구조 변경을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부진 보고용 1월 실적 및 3개월 전망(13.2.15.)(에버랜드)

※ 電子 사업장 식당 계약구조 개선(案)

계약구조 개선으로 식자재 充實度를 높여 식사품질을
提高하고 **當社の 현재 이익구조 유지** 및 식단가에

* 전자/에버랜드 공동TF, 식자재 마진 → 운영비 마진 移轉

식재료비 물가인상분을 반영 推進

전자사업장 식당계약구조 개선안(13.1.30.)[에버랜드]

(對外秘)

電子 사업장 식당 계약구조 개선(案)

'13. 1. 30.

I. 추진 배경

□ 기본 방향

- ① 계약구조 개선으로 식자재 充實度를 높여 식사품질을 提高
* 전자/에버랜드 공동TF, 식자재 마진 → 운영비 마진 移轉
- ② 當社の 현재 이익구조(직접이익률 22%) 유지
- ③ 식단가에 식재료비 물가인상분을 반영
* 물가인상을 적용하여 每年 반영

이부진 보고용 12년 실적 및 3개월 전망(13.1.16.)[에버랜드]

Original Message
Sender : [redacted]@samsung.com <[redacted]@samsung.com> <[redacted]@samsung.com> <[redacted]@samsung.com>
Date : 2013-01-16 16:53 (GMT+09:00)
Title : FC 12년 실적 및 3개월 전망

사장님, 안녕하세요
FC사업부 김 [redacted] 입니다.

'12년 실적 및 3개월 전망을 보고드립니다.

- 電子 식사 품질 개선 활동으로 F/L Ratio는 目標比 1.4%p 초과
⇒ 고객사 손실보전 협의 중 * 前年比 3.0% ↑
- 미래전략실, 전자본사와 근본대책 추진 중
① 계약구조/체계 개선 (식재료비 물가연동 등)

- 전자급식개선TF에서 삼성전자가 웰스토리에게 인정하여 준 거래 조건은 동종업계 어디에도 없고, 심지어 웰스토리가 거래하는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에서도 없는 파격적인 거래조건이다.

	사업자명	식재료비 마진 보장	단가제임에도 위탁수수료 15%지급	물가 및 최저임금 연동 식단가 인상
웰스 토리	이 사건 급식거래	○	○	○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	×	×	×
	아워홈	×	×	×
	현대그린푸드	×	×	×
	씨제이프래시웨이	×	×	×
	신세계푸드	×	×	×
	풀무원푸드앤컬처	×	×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	×	×
	아라마크	×	×	×
	동원홈푸드	×	×	×
	후니드	×	×	×
	웰리브	×	×	×
	본푸드서비스	×	×	×

② 식재료비 마진 보장

- 단가제 계약방식에서 식재료비 마진을 일부라도 인정해 주는 거래조건은 동종업계에는 없는 파격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이다.
- 동종업계 급식계약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단가제에서 식자재 마진 보장은 식재료 조달 효율화 리스크 및 식재료비 변동 리스크를 제거(hedging)하며, 식단 부실화 이슈가 발생해도 고객사 비용이 투입되어 안정적 마진이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파격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이라고 진술하였다.**

D社 000 부장 진술조서 발췌	B社 000 과장 진술조서 발췌
<p>답) 네, 고객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구매부대비용도 식재료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사가 구매부대비용 내지 구매간접비를 일정 수준에서 인정하여 이를 식재료비에 반영하여 준다면 이는 식재료 구매마진을 보장해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중략)</p>	<p>답) (생략) 고객사가 급식계약 체결시 구매부대비용 내지 구매간접비의 일정비율을 인정하여 이를 식재료비에 보전 내지 반영하여 준다는 것은 사실상 구매마진을 인정하여 준다는 것인데, 이는 단체급식 사업자에게 매우 유리한 거래조건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조건을 인정하여 주는 고객사는 없습니다. 통상 고객사들은 식재료비 인상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잘 반영해주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고객사에 말씀을 드려야 겨우 조금 식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이 업계의 현실입니다. 동종업계의 상황이 이러하데 구매마진을 고객사가 보전 내지 보장해 준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p>
<p>답) 구매부대비용, 구매간접비, 식자재 구매마진 등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이를 식재료비에 반영하여 주는 고객사는 없습니다. 이는 계열사와의 거래에서도 없는 파격적이면서 매우 유리한 거래조건입니다. (중략)</p>	
<p>답) 동종업계에는 없는 거래조건입니다. 고객사들은 계열회사든 비계열회사든 식재료비 조달에 따른 구매부대비용을 저희 쪽이 당연히 구매효율화를 통해 자체 부담해야 할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생략)</p>	

E社 000 부장 진술조서 발췌	D社 000 부장 진술조서 발췌
<p>답) 수치가 높을수록 저희 쪽에 유리하겠지만, 수치와 상관없이 구매마진을 일정비율 수준에서 보장하여 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파격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입니다. (중략)</p>	<p>답) 급식업체의 가장 큰 어려움이 식단이 부실해져서 고객사가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객사가 구매마진(구매부대비용 내지 구매간접비)을 인정하여 식단가에 반영하여 준다면, 식재료비 변동에 따른 식단 부실화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고, 안정적 마진을 유지할 수 있어 훨씬 여유롭게 급식운영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가장 큰 유리한 점은 급식사업자에게 가장 위협요인인 식재료비 변동 리스크를 제거(헷지)하여 준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우 큰 메리트로서 정말로 유리한 거래조건이라 할 것입니다.</p>
<p>답) 통상적으로 식재료비 마진은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결정되게 됩니다. 이는 식재료 가격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수에 따라 변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악재가 발생할 경우 이익이 감소되거나 손해까지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위험부담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중략)</p>	
<p>답) 말씀드린대로 너무 파격적인 거래조건이라 계열사에 요청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래조건입니다.</p>	

B社 000 과장 진술조서 발췌

답) 고객사에서 만일 이러한 거래조건을 인정하여 준다면,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치열한 노력을 통해 식재료비를 시장에서 보다 저렴하게 조달 하려는 노력 및 물류 효율화 등을 통해 식자재 마진을 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한 거래조건이고,

일반적으로 식재료비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지 않고 그 변동성이 심해서 식재료비가 예기치 못하게 인상되는 경우 저희 쪽에 손해가 많이 나는데 고객사가 이러한 거래조건을 인정하여 준다면 이러한 위험부담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거래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A社 000 00장 진술조서 발췌

문) 고객사가 구매부대비용 내지 구매간접비의 일정비율을 인정하여 이를 식재료비에 보전 내지 반영하는 등 구매마진을 보장해주는 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매우 유리한 것인가요?

답) 고객사가 구매마진(구매부대비용 내지 구매간접비)을 인정하여 식단가에 반영하여 준다면, 급식사업자에게 최대 리스크 요인인 식재료비 변동 리스크를 제거하여 준다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안정적 마진을 유진할 수 있고 식재료비 변동에 따른 식단부실화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어 정말로 유리한 거래조건이라 할 것 입니다.

③ 단가제 계약방식임에도 위탁수수료(인건비의 15%) 지급

- 동종업계 급식계약 담당자들은 단가제 방식임에도 약정한 식단가 외에 인력 관리비용 명목으로 인건비의 15%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까지 지급하는 거래조건은 너무나 파격적인 계약조건으로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A社 000 00장 진술조서 발췌

문) 단가제 방식으로 거래하는 고객사 중 관리비제 방식에서 존재하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 주는 고객사가 있나요?

답) 없습니다. 단가제라는 것이 식단가가 정해지면 정해진 식단가 내에서 저희가 식재료비 등 효율화를 통해서 이윤을 추구해 나가는 방식인데 어떤 고객사가 추가로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습니까. (중략) 계열사 여부를 떠나 없습니다.

문) 단가제 방식인데 인건비의 10%~15%를 추가로 수수료로 준다면 해당 고객사와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답) 너무나 파격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입니다. 단가제인데 인건비의 10% 내지 15%를 추가로 주는 고객사가 있다면 저희 쪽 입장에서는 매우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가제 방식에서 인건비의 단 1%만이라도 추가로 수수료로 제공해주는 고객사는 본적이 없고 그러한 사업장이 있다면 저희 측에서는 무조건 거래를 할 것입니다. 너무나 파격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입니다.

F社 000 과장 진술조서 발취	E社 000 부장 진술조서 발취
<p>문) 단가제 방식에서 위탁수수료가 포함된 계약건이 있나요?</p>	<p>문) 귀사가 운영하는 단가제 운영 사내식당에 위탁수수료가 존재하나요?</p>
<p>답) 계열사, 비계열사 불문하고 단가제 방식에서는 위탁수수료가 포함된 계약건은 없습니다. (중략) 단가제 방식인데 위탁수수료가 포함된 계약건이 있다면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급식제공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안정적 영업을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합니다.</p>	<p>답) E社가 단가제로 운영하는 사내식당에서는 위탁수수료가 존재하지 않고 그러한 영업 형태를 본 적도 없습니다. 파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만약 존재한다면 이는 매우 안정적 영업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일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경우를 본적이 없습니다.</p>

3. 미전실, 전자급식개선TF가 마련한 계약구조 변경안 승인 및 관계사 확산

① 미전실, 전자급식개선TF가 마련한 계약구조 변경안 확정(13.2.)

- 미전실장 최지성은 전자급식개선TF가 마련한 계약구조 변경안을 보고받고 확정(13.2월말) 하였으며, 미전실은 웰스토리를 통해 동 계약구조의 골격을 각 지원주체가 가감없이 따르도록 지시하였다.

전자 급식개선 T/F 후속방안(13.3.8.)		
□ 계약時유의사항		
① 해당의 사항은 전략실 결정사항이므로 계약時 사업부문의 요청으로 지사 재량에 의거 절대가감을 하여서는 안됨		
전자본사에서도 사업부문 총무에 특별히 당부한 사항임 (중략)		
<p>운영 관리비</p>	<p>기존15% + Markup</p>	<p>-기존 운영수수료*15%는 유지 단, 2.2% 인상 후 금액의15%</p>

② 미전실, 식자재 가격조사 중단지시(13.4)

- 미전실은 전자급식개선TF가 마련한 계약구조 변경안을 확정된 후 삼성전자 등 계열사에 대해 향후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한 가격조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다.
- 급식 수요자인 삼성전자로서는 식재료비 마진 보장에 대한 반대급부로 웰스토리가 약정한 식재료비(매입원가 기준 3,000원)를 실제로 전부 사용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으나, 미전실의 가격조사 금지조치로 이를 검증할 수단을 봉쇄당한 것이다.
- 웰스토리가 매입원가 공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검증수단은 자체 가격조사를 통해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 납품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이나, 미전실은 TF 직후인 13. 4월부터 이를 중단시킨 것이다.

웰스토리 최00 작성 '삼성디스플레이 식자재.gul' 발취

원가공개는 에버랜드 영업기밀을 요청하는 부분으로 하도급 컴플라이언스 위반소지가 있어 전략실에서 요청 및 제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전자群 Site사이트 中 15년간 자체 가격조사를 통하여 당사 구매단가를 결정하던 곳도 4월부터 해당활동을 전략실 지시로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180516 음료가격 이슈 및 물가협회 가격검증1 파일 출력물 발취(웰스토리)

※ 한국물가협회 가격을 양사가 협의한 후 전자의 식자재
가격조사는 지난 5년간 無('13~18年)

삼성전자 00총무그룹장 이메일(17.2.14.)

-----Original Message-----

Sender: 신00 <0000000@samsung.com> **/**/**/**/삼성전자

Date: 2017-02-14 09:02 (GMT+9)

Title : 웰스토리 식자재 단가 비교입니다.(빵, 계란) (중략)

제가 웰스토리 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00는 몇년전까지 저희들이 직접 시장에 나가서 시장조사를 하고 그 단가를 기초로하여 식자재단가를 책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웰스토리에서 타사업장은 시장조사를 안하는데 00만 한다고 해서 결국 안하게 되었습니다.

③ 미전실 주도 계약구조 변경안 전자군 관계사 확산(13.5.)

- 미전실은 전자 급식개선 T/F에 의한 계약구조 변경안을 전자군 관계사(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에 확산하는 후속조치에 개입하였다.
- 미전실 인사지원팀 김OO 부장은 웰스토리 전자급식개선TF 실무 담당자 최OO에게 관계사 계약구조 개선(안)을 적용할 관계사 리스트를 제공하였고, 이후 최OO은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미전실에 사후보고하였다.

웰스토리 전자급식개선TF 핵심 실무자 최OO 진술조서 첨부자료(20.7.31.)

미전실 관련 계약카피 - 1 - (당회)사 확산) 20.7.31. 20.7.31. 20.7.31. (인사팀) 20.7.31. 20.7.31. 20.7.31.

2. 전자外 關係社 계약변경 추진 현황

□ 基本 方向

- 임직원들에게 충실한 식사제공이 될 수 있는 구조로 轉換
- 식재료비 불가인상분을 每年 반영하여 품질저하 防止
- 식당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운영비 加減 인센티브 적용

□ 協議 內容 * 적용 방안 및 시기 확정 중임 (미전실 인사지원)

□ 向後 日程

- 4月末 Guide(案) 확정 및 6/1日 적용 예정
- 계약구조 개선 Guide 확정 : 4月中
- 계약구조 개선 Guide 공지 : 5月初
- 계약구조 및 변경 취지에 대한 설명회 실시 : 5月中
- 社別 메뉴 품질 강화 방안 수립 : 5月中
- 단가 인상 적용 * 인상된 메뉴 제공 : 6/1~

미전실 운영회의 자료(15.8.28.)

관계사 계약 현황

('15.7月 기준, 36個)

	계약일	'15년인상액		'15년기준단가		인상근거
		재료비	운영비	재료비	운영비	
전자(4個평균)	1/1日					13년 확정된 계약 Guide 인건비: 소비자 물가 인상을 재료비: 식료품 물가 인상을 기타: 선진급식 전환, 운영 평가
디스플레이	1/1日					인건비: 실적 기준 재료비: 개인 부담 고려
서초전자	1/1日	영업비밀 침해우려로 음영처리				
SDI 조제(3個)	4/1日					인건비: 최저시급 및 당사 인상을 재료비: '13년 그룹 가이드 준용
SDI 에너지천안	5/1日					
SDI 에너지부산	3/1日					
SDI 에너지가흥	3/1日					
전기(3個 평균)	1/1日					

- 삼성디스플레이는 “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해주라(전략실 지시)” 는 문구가 기재된 문건을 13년 사내식당 위탁운영 재계약안에 첨부하여 최종결재를 득하였는데, 당시 삼성디스플레이 급식 담당자 오OO 과장은 보다 정확한 보고를 위해 삼성전자 전자급식개선TF 핵심 멤버인 삼성전자 총무그룹 이OO 과장에게 동 문건의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문의를 한 후, 동 문건을 결재 참고용으로 첨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삼성디스플레이 13년도 사내식당 위탁운영 재계약(안)(13.3.29.) 발취

순번	구분	성명	결재일시	부서명
0	기안	[Redacted]	2013-03-29 11:42:53	[Redacted]
	승인	[Redacted]	2013-03-29 13:22:04	[Redacted]
1	SBC 동일 기준 적용입니다(전자 본사 및 DS부문 협의 후) 주요 내용은 중순 식재료비 3,000원 보전을 위함이며, 지속적으로 품질개선을 활동을 추진하 게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시행 및 정산 기준일 : '13. 4. 4(목)	[Redacted]		[Redacted]
2	승인	[Redacted]	2013-03-29 14:54:51	[Redacted]
3	합의	[Redacted]	2013-03-29 15:39:49	[Redacted]
	전자 인상단가의 동일 기준임을 확인했습니다	[Redacted]		[Redacted]
4	합의	[Redacted]	2013-03-29 17:43:57	[Redacted]
5	통보	[Redacted]	2013-03-29 17:43:57	[Redacted]
6	통보	[Redacted]	2013-03-29 17:43:57	[Redacted]
7	통보	[Redacted]	2013-03-29 17:43:57	[Redacted]
8	통보	[Redacted]	2013-03-29 17:43:57	[Redacted]
9	통보	[Redacted]	2013-03-29 17:43:57	[Redacted]

별첨 : 13년 위탁운영 재계약(案)
아산지사 식당운영 품질개선(案)
전자 급식개선 T/F 후속(안) 검토서

(이하 별첨 3: 전자 급식개선 T/F 후속(안) 검토서 일부발취)

상세 설명
① 전제: 에버랜드 Mark up 25%을 추가 식재료비로 사용하게 하여 계약금액의 100%을 사용 품질을 보전하라
또한 에버랜드의 이익을 보장해 주라(전략실 지시)

삼성디스플레이 급식담당자 오OO 과장 진술조사 발취

문) 동 기안문상 별첨 자료 중 ‘전자급식 개선 T/F 후속(안) 검토서’는 삼성웰스토리 박OO 선임이 진술인에게 전달해준 자료인데 진술인은 어떠한 이유로 귀사의 13년 사내식당 급식계약 기안문에 동 자료를 별첨으로 첨부하였나요?

답) 보다 정확한 보고를 위해 참고용으로 별첨을 하였습니다.

문) 동 자료는 진술인이 작성한 자료가 아닌데 관련 사실에 대해 삼성전자 측에 문의를 한 적이 있나요?

답) 동 별첨자료에 대해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당시 삼성전자 본사 급식담당자 이OO 과장에게 문의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4. 미전실 주도로 웰스토리의 급식물량 보전(식수물량 이탈 방지)

① 미전실 전략1팀 최00 전무, 삼성전자 4개 식당 대외개방 [경쟁입찰] 중단 지시(14.1.)

① 삼성전자 사내식당 전면 대외개방 추진

- 삼성전자는 13. 10. 4.경 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급식 및 건물(빌딩)관리 부문에 대해서는 보안상 중요도와 상관 없이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시행하도록 하는 대외개방 가이드를 마련하여 각 사업장에 제공하였다.

급식·빌딩관리 중심의 계열사거래 대외개방 시행안(13.10.4.) 발취(삼성전자)

급식·빌딩관리 중심의

계열사거래 대외개방 시행(안)

'13. 10. 4

[급식·빌딩관리 등 계열사로 위탁하는 업무를 대외개방함에 따라, 시행(안)을 수립하여 전사적으로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함.]

1. 계열사거래 대외개방 가이드

□ 거래원칙 :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경쟁입찰」 시행.

- 대 상 : 계열회사와 거래중인 사내식당 위탁운영/빌딩관리.
 - 보안 중요도와 상관없이 전체 대상으로 검토.

영업비밀 침해우려로 음영처리

② 전면개방에서 부분개방으로 축소

- 에버랜드는 13. 12. 1. 단체급식 사업을 영위하는 FC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에버랜드의 100% 자회사인 웰스토리를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급식부문은 사익편취행위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급식부문이 사익편취행위 규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삼성전자 인사팀은 급식부문의 대외개방 여부를 재검토하였고, 이를 14. 1. 15.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에게 보고하였다.
- 웰스토리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는 급식업종을 부분이라도 개방할 것을 지시하였고, 최종적으로 삼성전자 4개 식당*을 우선 대외개방하고, 향후 사업장 내 주요식당으로 확산하기로 결정하였다(14.1.22.).

* 수원 4식당, 기흥 남자기숙사식당(랑데뷰홀), 구미 1캠퍼스식당, 광주 3캠퍼스식당

급식부문 계열사 거래 대외개방 검토(14.1.16.)	급식부문 대외개방 시행안 보고(14.1.22.)
<p style="text-align: right;">'14. 1. 16 人事팀</p> <p>급식부문 계열사 거래 대외개방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버랜드 FC사업부가 웰스토리로 물적분할('13.12.2일자) 되어, 계열사거래 및 공정거래법 적용의 변동사항 발생 - 계열사거래 대외개방 여부를 재검토하여 인사팀장 (1.13일) 및 CFO 보고함 (1.15일) <p>□ 보고 결과 : 部分이라도 대외개방 할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되, 안정적 급식제공과 운영역량 검증을 위해 단계적으로 개방 <p>① 1단계 : 全社 4개 식당 (日 12천식 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 : 2단지내 위치한 4식당 (日 4,100식) · 기흥 : 사외에 위치한 남자기숙사 식당 (랑데뷰홀, 日 1,800식) · 구미 : 1캠퍼스 단독식당 (1캠퍼스 1식당, 日 3,700식) · 광주 : 3캠퍼스 단독식당 (3식당, 日 2,200식) <p>※ '13.5월 보고時 포함되었던 서초(계약 중), 문양(기숙사 식당 폐쇄) 제외</p> <p>② 2단계 : 사업장내 주요식당으로 점차 확산</p>

③ 미전실, 경쟁입찰 중단 지시

- 대외개방 대상 식당이 14. 1. 24. 입찰준비에 들어가자마자, 삼성전자 CFO(사장)가 결정한 대외개방(경쟁입찰)안을 직급이 한참 낮은 미전실 전략1팀 최OO 전무*가 입찰당일 전화 한통으로 무산시키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 * 당시는 제일모직(에버랜드)과 舊삼성물산의 합병(15.9)이 있기 바로 직전 연도로 그룹내 대규모 자금수요가 예상되는 시점이었음. 미전실 전략1팀 최OO 전무는 단체급식 업무와 전혀 무관한 인물로 그룹내 대표적 재무통임

삼성전자 00사업장 이OO의 14. 1. 24.자 e-mail 발취

보류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본사 총무그룹장에게 전화가 온 것을 담당자인 이OO 과장이 당겨 받아서 최OO 전무에게 직접 전달 받았다**고 합니다.

-----Original Message-----

Sender : 이OO<OOOOO@samsung.com>****/**/*****/삼성전자

Date : 2014-01-24 13:38 (GMT+09:00)

Title : 식당 대외 개방 시행 보류

식당 대외 개방(입찰) 시행은 보류되었습니다.

* **전략1팀 최OO전무 전달사항**

- 미전실 최OO 전무의 개입(14.1) 이후, 이 사건 지원주체들은 급식 대외개방을 안하는 것이 그룹방침임을 알게 되었고, 이후 대외 개방 여부는 그룹사, 즉, 미전실이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 단적인 예로 17. 4. 11.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직원간 이메일을 보면, 14년 1월부터 17년 4월까지 급식개방은 그룹사, 즉, 미전실 방침에 따라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삼성전자 00사업장 노OO 및 김OO의 17.4.11.자 e-mail 발취

본 내용, 언젠가 또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Original Message-----

Sender : 노OO<OOOOOO@samsung.com>*****/*****/삼성전자

Date : 2017-04-11 09:54 (GMT+9)

Title : RE: 확인 필요

*****님, **님, 14.1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이슈로 급식부분 대외개방을 검토했으나, 그룹 방침에 따라 최종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 당시 **는 기흥 남자기숙사 식당을 검토했으며, (중략) 현재까지 경영지원실 총무에서는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그룹방침이다라는 답변만 보내오고 있으며, 이외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② 삼성전자 인사팀장 박00, “너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며 삼성전자 2개 식당 대외개방(경쟁입찰) 중단지시(17.10.)

- ① 단체급식 시장 수의계약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삼성전자는 17. 10. 2개 식당*에 대한 대외개방안을 마련하여 박00 인사팀장(부사장)에게 보고하였다.

* 수원 플라리스 식당(일 1800食, 연28억 원 규모), 구미2캠퍼스 A식당(일 4,500食, 연69억 원 규모)

삼성전자 이원화 관련 이슈 파악(17.10.20.)[웰스토리]

- '17.10.19일 조 [REDACTED] 상무 지시로 식당운영 이원화 관련 인사팀장(박 [REDACTED] 부사장) 보고
- 대상 : 수원 플라리스(日1,800食, 年28億), 구미 2캠퍼스 A식당(日4,500食, 年69億)
- 경쟁입찰 방식 이며 업체는 [REDACTED]

- ② 그러나, 미전실 출신 인사팀장 박00은 5,000식/일 미만의 소규모 2개 식당에 대해 경쟁입찰을 추진하는 것임에도 “너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는 이유로 대외개방을 중단시켰다.

삼성전자 이원화 관련 이슈 파악(17.10.20.)[웰스토리]

이원화 관련 이슈 파악

'17.10.20/전자FS담당

- 인사팀장이 너무 큰 파장이 예상되는 바 보류 하라 지시
단, 정부의 (총리실) 구체적 지시가 있는 경우 재검토 및 웰스토리 운영 상태를 체크하여 압박 카드로 활용 지시

- 박OO는 14년 자신이 추진하여 CFO(사장)까지 결재가 나서 입찰 준비절차에 들어갔던 삼성전자 4개 식당 대외개방안이 입찰당일 직급이 한참 낮은 미전실 전략1팀 최OO 전무의 전화 한통으로 추진이 중단(14.1.24.)되는 것을 경험한 인물이다.

③ 참고로,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은 모직-물산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舊삼성물산 주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배당확대 정책을 실시 중이었다.

- 바이오에서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배당 실시를 위해서는 17년 부터 19년까지 영업이익 기준으로 3년 평균 1,11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웰스토리로부터 확보되어야 했다.

- 삼성물산은 17년 자신의 100% 자회사 웰스토리의 당기순이익 810억 원 보다 더 많은 금액(930억 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

3개년(17년~19년) 배당정책(안)(삼성물산)

별첨 3

연도별 손익 (억원)

	'17년 전망	'18년 계획	'19년 중장기	비고
매출액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웰스토리)	(1,190)	(1,080)	(1,080)	
바이오				
영업이익				
건설 (전자배당) 상사 (전자배당) 패션 (전자배당) 리조트 (전자배당) (웰스토리) 바이오	영업비밀 침해 우려로 음영처리			
세전이익 (전자배당)				
(생명배당)				
(SDS 배당)				

물산, 웰스토리로부터 배당금 수취현황

구분(회계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삼성웰스토리 당기순이익(A)	73,518	73,631	81,177	70,006	59,094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72,813	69,245	93,832	83,627	102,070
중간배당	22,800	-	43,000	-	-
정기배당 * 회계연도 기준	50,000	50,000	50,000	50,000	10,000
배당지급 총계(B) * 회계연도 기준	72,800	50,000	93,000	50,000	10,000
배당성향(B/A)	99.02%	67.91%	114.56%	71.42%	16.92%

③ 삼성전자 정00 사업지원TF장, 삼성전자 수원패밀리홀 경쟁 입찰 중단지시(18.5.)

- ① 삼성전자는 18. 4. 공정위의 조사가 임박한 시점에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패밀리홀에 대한 경쟁입찰을 추진하였다.
- ②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실제 웰스토리 경쟁사업자가 제출한 견적서를 통해 웰스토리 식단가가 타사업자 견적 대비 최대 14.6% 높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 6,116원(웰스토리), 타 사업자 5,116원 ~ 5,500원

패밀리홀 입찰관련 진행사항 공유 제하의 최00 작성 이메일(18.5.17.)

□ 3개社 입찰 제안 수준 관련 정보 * 전자총무 보안 유지로 파악이 미흡함

- 3개社 모두 웰스토리 대비 2~3年前 단가를 제시함

* 제안 식단가(추정): 5,200-5,300원

영업비밀 침해우려로 음영처리

- ③ 그럼에도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정OO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패밀리홀 경쟁입찰 추진 중단을 지시(18.5.17경) 하였다.

패밀리홀 입찰관련 진행사항 공유 제하의 웰스토리 최OO 작성 이메일(18.5.17.)

2. 기타사항

□ 식자재 구매 경쟁력 확인 요청 件 (4/16)

- 전자에서 식자재 품목 30가지를 선정하여 발주단가를 웰스토리 및 업체에 요청하였으나 입찰 업체 中 CJ社가 운영 확정 전에는 식재료 단가 미공개 한다고하여 취소됨

□ 경쟁입찰관련 고객사 담당자 미팅 내용 * [redacted] 부장

- '18.7월 경쟁입찰 공식화 예정 * 수원센터장 즉시시행 지시 → 계약일등 사유로 연기
 - 관계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압력은 불가피
 - * 증권/전자서비스後 타겟은 전자로, 사내식당 부문 사전준비 필요
 - 웰스토리 참여여부는 근본적인 취지 고려하여 판단 요망
 - 경쟁입찰을 웰스토리의 경쟁력 강화 기회로 삼을 것을 언급
- ⇒ 최종판단은 사업지원T/F 보고後 '19.1월 예정 입찰예정

패밀리홀 입찰관련 진행사항 공유 제하의 웰스토리 최OO 작성 이메일(18.5.17.)

1. 패밀리홀 관련 진행현황 * 5,800食/日

□ 전자총무 패밀리홀 입찰 관련하여 3개 업체 제안 검토(3/23)

영업비밀 침해 우려로 음영처리

(중략)

□ '18.5.17 전자 CFO 및 <사업지원 T/F장 보고 결과>

- 패밀리홀 경쟁운영 未시행 결정 (이하 생략)

I-④

지원결과

-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웰스토리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 이 사건 지원행위로 웰스토리는 미전실이 의도한 이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25.3%의 평균 직접이익률*(13~19년 평균)을 시현할 수 있었다.

* [매출액-직접비용(식재료비,인건비, 소모품비)]/매출액*100

이 사건 지원행위 관련 직접이익률 현황								
								[단위: %]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평균
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직접이익률	26.1	27.2	26.9	26.4	25.2	23.3	21.4	25.3

- 웰스토리는 비경쟁 방식의 내부거래를 통해 현저한 규모의 물량을 파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상위 11개 사업자들의 영업이익률(3.1%) 대비 현저히 높은 영업이익률(15.5%)을 시현하였다.
- 이 사건 지원기간 웰스토리는 경기 변동, 업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15.5%)을 시현한 반면, 경쟁 사업자들의 영업이익률은 급감(13년 4.1%→19년 1.6%)하였다.

이 사건 지원행위 관련 영업이익률 vs 단체급식 시장 상위 11개사업자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평균
이 사건지원행위 관련 평균 영업이익률	17.7	18.0	17.3	15.3	15.4	13.4	11.4	15.5
11개 단체급식사업자 평균 영업이익률	4.1	3.9	3.7	3.2	3.1	2.0	1.6	3.1

- 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와의 거래를 통해 얻은 총 영업이익(4,859억 원)은 같은 기간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의 합계액(1조 2,304억 원)의 39.5%에 달한다.

삼성전자 등 4개사와의 거래 관련 영업이익이 단체급식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억 원, %]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삼성전자 등 4개사에 대한 웰스토리 영업이익(A)	645	731	676	613	738	791	665	4,859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B)	1,692	1,993	1,942	1,813	1,923	1,560	1,381	12,304
비중(A/B*100)	38.1	36.7	34.8	33.8	38.4	50.7	48.2	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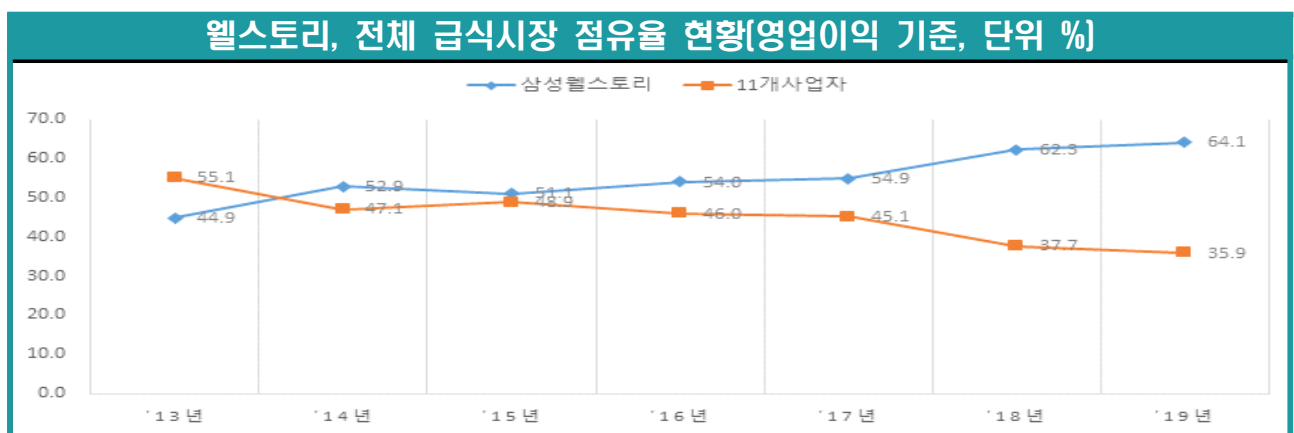
- 한편, 웰스토리는 경쟁이 작동하는 외부시장에서는 생존이 불가할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 등 4개사와의 거래에서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시현하였다.

웰스토리의 비계열사 영업이익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평균
비계열사로부터 시현한 영업이익	△80	34	15	54	5	△91	△40	△103	△15
이 사건 지원행위 관련 영업이익	645	731	676	613	738	790	665	4,859	694

- 웰스토리는 단체급식 내부거래를 통해 취득한 안정적 수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Cash Cow)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 삼성물산이 15년부터 19년까지 웰스토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총액은 2,758억 원으로 웰스토리는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을 삼성물산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다.

삼성물산, 웰스토리 감사보고서						
[단위: 백만 원]						
구분(회계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삼성웰스토리 당기순이익	73,518	73,631	81,177	70,006	59,094	357,426
배당지급 총계	72,800	50,000	93,000	50,000	10,000	275,800

- 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발판으로 외부 사업장에서의 단체 급식 경쟁입찰에서 현저히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독립 급식업체의 생존을 위협하였다.
 - 웰스토리는 외부 사업장의 경우 신규수주는 영업이익률 0%, 재계약은 영업이익률 -3%를 기준으로 한 수주전략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지배력 확대에 나섰다.
 - 이로 인해 독립 급식업체는 입찰 ‘기회’ 자체를 상실하였고, 다른 급식 입찰에서도 불리한 조건에서 수주경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 이 사건 지원 행위에 의해 웰스토리의 사업 기반과 재무 상태가 인위적으로 유지·강화됨으로써 웰스토리의 경쟁 여건이 경쟁 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하게 제고되었다.
 - 실제 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제고된 경쟁여건 및 내부시장(Captive Market)의 안정적 이익을 바탕으로 13년부터 19년까지 단체급식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 이 사건 지원행위가 있었던 13년을 기점으로 14년부터 웰스토리의 영업이익이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개 경쟁 사업자들의 영업이익이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상회하기 시작하였고, 17년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II

조치결과

□ 적용 법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지원 주체에 대한 규정), 동조 제2항(지원 객체에 대한 규정)

< 적용 법조 및 대상 >

지원기간	적용법조	적용대상	비고
2013. 4. 1. ~ 2015. 2. 13.	舊법 제23조①항7호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지원 주체
2015. 2. 14. ~ 2021. 6. 2.(심의일)	법 제23조①항7호 법 제23조②항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	지원 주체 지원 객체

* 2013년 8월 13일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을 말함

□ 조치 내용

○ 시정 명령

○ 과징금 부과(총 234,927백만 원)

- 삼성전자: 101,217백만 원
- 삼성디스플레이: 22,857백만 원
- 삼성전기: 10,511백만 원
- 삼성SDI: 4,369백만 원
- 삼성웰스토리: 95,973백만 원

* 과징금은 산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고발 : 삼성전자(주), 前미전실장 최지성

III

의의 및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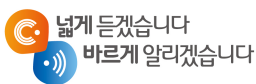
- 단체급식 시장은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심으로 독과점이 심화되고 계열사 간 높은 내부거래 비중으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지적을 받아왔던 대표적 업종이었다.
 - 공정위는 2017년 9월 기업집단국 신설로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자, 본격적으로 단체급식 분야 실태조사에 착수하였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단체급식 시장 전체 거래물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 그룹의 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
- 금번 조치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다수 계열회사들이 장기간에 걸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과도한 경제상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한 것으로, 특히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를 면탈해 가면서 장기간 은밀하게 진행되었던 계열사 간 지원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 당초 웰스토리는 에버랜드 사업부 소속으로 이재용 일가의 지분율이 높아 특수 관계인 등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사익편취행위)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의 규제대상이었으나, 2013. 12월 물적분할됨으로써 동 규제에서 벗어남
- 한편, 이번 삼성전자 등 5개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의 부당지원행위 사건 집행 이래 최대이며,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 1,012억 원은 국내 단일기업 규모로는 최대이다.
- 금번 조치로 그간 웰스토리가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확보한 이익을 바탕으로 영업이익률 -3%에도 수주를 감행함으로써 입찰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다른 급식 입찰에서도 불리한 조건에서 수주경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쟁 급식기업들의 경쟁여건이 개선됨으로써 단체급식 시장의 공정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이 사건을 계기로 대기업집단 소속 단체급식 수요기업의 자율적인 대외개방 참여가 확산됨으로써 단체급식업을 영위하는 독립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
- 향후, 공정위는 현재 주요 대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는 자율적인 단체급식 대외개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아울러 본 건과 같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면탈하면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첨부1> 단체급식시장 현황

<첨부2> 이 사건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 계약방식: 단가제

<첨부3> VOC 자료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첨부1

단체급식 시장현황

- 단체 급식이란 산업체의 공장이나 사무실, 연구소,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적인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처음에는 직원 복리후생 차원의 비영리 급식 형태로 운영되다가, 1990년대 위탁급식 형태의 등장으로 영리사업 성격으로 변모하여 2000년대부터는 점차 시장이 성장,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국내 단체 급식 시장은 2019년 기준 약 4조 2,799억 원* 규모로 파악되며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특징을 나타낸다.
 - * 12개 상위 단체 급식 사업자 매출액을 기준으로 추산
 - 단체 급식 사업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을 갖추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비교적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나, 실제로는 시장의 80%를 대기업집단 계열사 등 상위 5개사가 점유하고 있다.

< 단체 급식 시장 점유율 현황 >

(단위 : 억 원, %)

업체명	매출액 (비중)
삼성웰스토리	12,197 (28.5)
아워홈	7,658 (17.9)
현대그린푸드	6,287 (14.7)
씨제이프레시웨이	4,678 (10.9)
신세계푸드	3,009 (7.0)
풀무원푸드앤컬처	2,179 (5.1)
한화호텔앤드리조트(現푸드스트*)	2,095 (4.9)
후니드	1,279 (3.0)
동원홈푸드	1,217 (2.8)
아라마크	1,165 (2.7)
웰리브	581 (1.4)
본푸드 서비스	454 (1.1)
계	42,799 (100)

*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20. 2. 1. 위탁급식 및 식자재 유통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신설 법인 푸디스트를 설립한 후 푸디스트 지분 100%를 VIG 파트너스에 매각하였음

< 단체 급식 시장 점유율 현황 >

(단위 : 억 원, %)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삼성 웰스토리	10,127 (30.6)	10,987 (31.3)	11,115 (30.4)	11,209 (29.9)	11,336 (29.0)	11,547 (27.9)	12,197 (28.5)
아워홈	6,257 (18.9)	6,373 (18.2)	6,705 (18.3)	6,519 (17.4)	7,134 (18.3)	7,656 (18.5)	7,658 (17.9)
현대 그린푸드	5,497 (16.6)	5,888 (16.8)	6,216 (17.0)	6,070 (16.2)	5,836 (14.9)	5,946 (14.4)	6,287 (14.7)
씨제이 프레시웨이	1,955 (5.9)	2,182 (6.2)	2,701 (7.4)	3,164 (8.4)	3,478 (8.9)	4,116 (10.0)	4,678 (10.9)
신세계푸드	2,553 (7.7)	2,434 (6.9)	2,415 (6.6)	2,979 (7.9)	3,144 (8.1)	3,390 (8.2)	3,009 (7.0)
풀무원 푸드앤컬처	1,758 (5.3)	1,839 (5.2)	1,943 (5.3)	1,940 (5.2)	1,970 (5.0)	2,144 (5.2)	2,179 (5.1)
한화호텔 앤드리조트	1,576 (4.8)	1,640 (4.7)	1,495 (4.1)	1,680 (4.5)	1,873 (4.8)	2,083 (5.0)	2,095 (4.9)
후니드	690 (2.1)	910 (2.6)	943 (2.6)	899 (2.4)	1,071 (2.7)	1,124 (2.7)	1,279 (3.0)
동원홈푸드	874 (2.1)	903 (2.6)	1,014 (2.8)	1,028 (2.7)	1,095 (2.8)	1,173 (2.8)	1,217 (2.8)
아라마크	941 (2.8)	972 (2.8)	1,002 (2.7)	1,089 (2.9)	1,256 (3.2)	1,275 (3.1)	1,165 (2.7)
웰리브	804 (2.4)	856 (2.4)	941 (2.6)	765 (2.0)	598 (1.5)	549 (1.3)	581 (1.4)
본푸드 서비스	103 (0.3)	92 (0.3)	88 (0.2)	152 (0.4)	246 (0.6)	326 (0.8)	454 (1.1)
계	33,135	35,076	36,578	37,494	39,037	41,329	42,799

* 12개 상위 단체 급식 사업자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추산

첨부2

이 사건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 계약방식: 단가제

□ 단체급식 계약방식은 단가제와 관리비제로 구분됨

-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식재료비, 인건비를 어떻게 정산하느냐에 따라 단가제와 관리비제로 구분된다.

구분	내용
단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약정된 식단가에 판매식수를 곱하여 정산 • 정해진 식단가 내에서 급식업체가 식단가를 구성하는 식재료비 등의 효율화를 통해 이윤추구 ⇒ 위탁수수료라는 개념 자체가 없음 ⇒ 식재료비 등의 효율화에 대한 리스크는 급식업체가 부담
관리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사가 실투입 원가(식재료비, 인건비, 경비)를 모두 정산 ⇒ 급식업체의 수익원은 위탁수수료(통상 인건비의 일정수준) ⇒ 식재료비 등의 효율화를 통한 이윤추구 자체가 불가

□ 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이 사건 지원주체들의 계약방식을 단가제 계약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 삼성전자 등 지원주체들은 단가제 계약방식임에도 관리비제에서나 있는 위탁수수료(인건비의 15%)를 웰스토리에게 지급하고 있다.

관계사 직원식당 운영현황(15.2.13.) 발췌(웰스토리)

□ 식단가 계약 형태는 實투입 원가(재료비와 운영비)를 정산해주는 관리비제로 출발하였으나

운영 효율 제고 차원에서 各社의 선택에 따라

'단가제'와 '관리비제'로 구분 적용 中

정산 방식	
단 가 제	식단가를 매년 물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사전에 계약하고 판매량(식수)를 기준으로 정산 * 電子, 전기 생명 等 11개사 (年間 83.0百萬食, 전체 관계사 中 71.6%)
관리비제	식단가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나 事前에 가격 지침을 주고 사용량 및 월정액 운영비를 정산 * 중공업, SMC, SDS 등 6개사 (年間 24.5百萬食, 전체 관계사 中 21.2%)

* 단가제·관리비제 혼합형은 SDI, 테크윈, 호텔 3개사(年間 8.3百萬食, 전체 관계사 中 7.2%)

삼성전자 구내식당 VOC 일부 발취

사내 식당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토론

2012-08-22

👍 84 🗨 91 📄 0

북마크

사내 운영되는 식당에 대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것 같은데

아직도 개선해야 될 점이 있어 글을 올려 봅니다

- 1. A,B,C,D 코스별 배식속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10분씩 기다릴때도 있습니다.
- 2.아침 배식시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Takeout 음식이 없어 아침도 굶을 경우가 있네요
- 3.식당 탁자에 1가지 있는 김치도 떨어지기도 리필도 제대로 해 놓지 않고

에버랜드 말고 타 업체와 경쟁을 한번 해보는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수원에서 한번 그런적이 있었는데 장난 아니었어요 (서로 많이 팔려고 경쟁하는 모습이)
 저만의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공감아 될까해서 올려 봅니다.

충무그룹(DS)/김

TAG

삼성전자 구내식당 VOC 일부 발취

사내 식당 웰스토리 외에 다른 식당도 들어오면 안될까요? #건의

2019-01-29

👍 355 🗨 30 📄 8

북마크

다른거는 이원화 잘 하면서, (설비/소재사)
 식당도 이원화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퀄리티는 갈수록 저하가 되고, 임직원에 대한 소통도 없고..
 이걸 너무 합니다.
 복지차원 제공이 아니라, 엄연히 우리 돈 내고 먹는겁니다.

C나 플무원 등 다른 타사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TAG

삼성전자 구내식당 VOC 일부 발취

베이글과 크림치즈 #상담

2016-09-05

0 5 0

북마크

베이글을 먹는 사람들은 주로 크림치즈와 커피를 같이 집는다.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설탕과 버터가 듬뿍 들어가 그런 빵이 아니라,
베이글의 담백함과 톡톡함, 풍부한 크림치즈의 맛, 그리고 커피의 향.

언젠가부터 가끔 베이글을 잘라서 크림치즈를 잘 발라 놓길래 한 번 먹어봤다.
아... 지나치게 단 맛, 그건 치즈 향이 나는 기름과 설탕 덩어리였다.
한 입도 채 못 먹고 버리고 말았다. 배고프고 슬픈 하루가 되어버렸다.

웹스토리아, 안정적으로 수요예측이 가능한 이런 좋은 시장이 또 어디있나. 779
원가절감의 노력은 잔반줄이기 등으로 충분히 하고 있지 않느냐.
제품의 품질을 깎으면서, 임직원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하고 싶은건이나.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것을 만지는 사람들은
너무 욕심내서 살면 절대로 안된다.
그게 그런 사람들의 업의 개념이다.

삼성전자 구내식당 VOC 일부 발취

식당 담당자님 음료 2개 + 식품 1개도 허용 건의 드립니다. #건의

2018-01-16

179 24 8

북마크

식당담당자님 음료 2개 + 식품 1개도 허용 건의 드립니다.
기존에는 식품 1개의 단가가 높았기 때문에 식품 1개 + 음료 2개가 안됐다고 치고..
지금은 식품 1개의 단가와 질이 매우 낮아졌는데 아직도 음료만 가져갈려면
음료 2개만 허용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직원들은 공짜밥을 먹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매출의 일부분이 식당운영비와 밥값(웹스토리아)으로 지급되고 있고,

이런 당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제품 설계부터 제조, 생산, 판매, 영업까지 원가 1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력투구 하는 데 왜 우리가 이용하는 업체(음)는 우리가 밥값으로 지급하고 있는 돈보다

훨씬 단가, 질이 낮은 테이크아웃을 주고,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는 데

시정되지 않는 건가요?

모, 자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어우리 그래도 식품 2개 + 음료 1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매탄동)
삼성전자서비스지원센터

삼성전자 구내식당 VOC 일부 발취

돈까스 덮밥의 돈까스가 절반으로 줄었네요. 원가 절감의 끝은 어디일지. #토론

2018-04-12

270 63 24

북마크

오늘 아침 사내 식당 테이크 아웃에서 오랜만에 돈까스 덮밥이 나와 반갑게 집었습니다.

휴게실에서 뚜껑을 열어보니. 영??

갈죽했던 돈까스가 툭 잘려져 미니 돈까스 마냥 네모네진게 딱 세조각!!

이게 무슨 돈까스 덮밥입니까.

수제 돈까스도 아니고, 정말 원가 얼마 안되는 냉동 돈까스일 텐데 이런 것 까지 줄이는거 보면.

대체 웰 스토리의 올 상반기 원가 절감 목표치가 정확히 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마을의 준비라도 하세요.

제발 담당자께서는 테이크 아웃 빵 문제 하나로 몰타기 하지 말고,

독점 웰스토리의 질 저하 문제를 정확히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구내식당 VOC 일부 발취

H1 Mory Hole T/O 빵에서 머리카락 나왔어요 #기타

2018-05-09

7 6 2

북마크

94F4099E34814881884587329F5EA5B3

오늘 아침 H1 Mory hole 식당 Take Out 빵 메뉴중 롤롤베이글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네요..

혹시나 제 머리카락인가 싶어 자세히 봤는데 치즈부분에 아예 박혀있네요

Low Sugar 건강빵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건강빵에서 머리카락이라니.....

뭐 어쩌자는건 아니고 그냥 아침부터 빵먹다가 기분이 참 그렇네요.....

사내 식당이랑 이런 빵들 납품이 다 웰스토리 독점이라 그런가.. 위생에 좀 더 신경써줬으면 좋겠네요.

TAG Mory hole, MR1 Cafeteria, T/O빵

삼성전자 구내식당 VOC 일부 발췌

1/9 저녁 동치미 국수: 냉동 냉면 국물에 무채 썰어넣고 동치미? #토론

2019-01-09

👍 25 🗨 8 📎 2

북마크

웰스토리의 독점지위를 이용한 원가 절감 지상주의에 백기를 든지 이미 오래지만..
그래도 오늘 먹은 메뉴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바로 비닐 봉지 냉동 냉면 육수(조미료국물)에..

무채만 조금 넣어놓고 동치미 국수라고 하고 내놓습니다.

절인 무가 담긴 국물이니 동치미라고 감사하게 먹으라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무에서 우러 나오는 시원한 국물이 아니라, 그냥 시판되는 (조미료)냉동 냉면 육수 맛이자나요.

총무그룹(DS)/김

내려놓은지 오래였는데 오늘은 정말 너무했습니다

- * 자료 설명 및 의미: 삼성전자 사내 게시글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삼성전자 직원들은 웰스토리에 대한 불만이 크며, 다른 급식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경쟁체제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음